

KAIST's Online Electric Vehicle Paves Way for Future Transportation

아리랑 TV 밤 10시 메인뉴스, 기사입력 2010-06-18, 검색 기자 seok@arirang.co.kr
http://www.arirang.co.kr/News/News_View.asp?nseq=104154&code=Ne4&category=3

KAIST's Online Electric Vehicle Paves Way for Future Transportation

Limited supplies of fossil fuel as well as the issu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re projected to drive up the demand of electric vehicles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electric vehicles, experts in the field gathered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s campus in Daejeon for a three-day conference.

Among them is Andrew Brown, President of SAE International, which is a global association of more than 128-thousand engineers and related technical experts in the aerospace, automotive and commercial vehicle industries.

Electric vehicles still face many hurdles before mass market commercialization can fully take place, such as the high cost of batteries and the lack of infrastructure to charge them.

But he says this much is certain, for electric vehicles to become successful it is vital for all the involved stakeholders to cater to the needs of the consumer.

[Interview : Andrew Brown, President

SAE International] "And of course, at the end of the day it has to be a win-win proposition. The consumers, you and I have to find it affordable to utilize these technologies on our vehicles. And so, the challenge is for government, for industry, for universities, for all of us to really create technologies that are affordable by the consumer."

KAIST is leading this initiative with a practical solution with mass market application not that far away.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battery-powered electric cars, engineers at KAIST have been developing an alternative electric vehicle.

The Online Electric Vehicle, or OLEV, doesn't require any cable lines as it uses electric power supplied from coils buried below the road.

[Reporter : Kim Seok

seok@arirang.co.kr] "An electromagnetic field is created from the power lines

buried underneath. This field is then transmitted wirelessly to a pick-up gadget installed underneath the bus where it is converted into electricity."

The batteries used in these online electric vehicles are one-fifth the size of batteries installed in current electric cars.

Expensive charging stations are not needed as the OLEV system draws power from the underground power lines.

And only about 20 percent of the road needs to have the underground coils as batteries are recharged when the vehicle is on top of the coils.

The president of KAIST says the development concept was actually quite simple.

[Interview : Suh Nam-pyo, President

KAIST] "It's a very simple idea. The simple idea is that we should not carry energy in the car. We should supply energy from outside. That way, we do not have to use expensive batteries. Why should you carry energy if you can supply it from outside

“KAIST 온라인 전기차 놀랍다”

세계 전기차 전문가, 실용화 기술 큰 기대

대전일보, 기사입력 2010-06-19, 정재필 기자 jpscoop@daejonilbo.com

세계적인 전기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 타당성여부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고 있는 KAIST의 온라인 전기차(OLEV·On-Line Electric Vehicle)가)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제전기차포럼을 위해 KAIST를 방문한 앤드루 브라운(Andrew Brown) 국제자동차공학회장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로상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이 처음은 아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KAIST가 선두”라며 “지금의 수송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높이 치하했다.

30여년 전 미국 UC버클리에서 온라인 전기차를 연구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스티븐 쉘라도버(Steven Shladover) 박사도 “당시에는 배터리의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이 낮아 실패했는데 KAIST에서 되살아나 발전되고 있는 것에 감동받았다”며 “높은 수준의 실험시스템과 산학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다테오 아리모토(Tateo Arimoto) 박사도 이날 “어제 온라인 전기버스를 시승해봤다. 1980년대 일본에서 도입하려다 중단된 것인데 KAIST에서 충분히

실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대중교통수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최대 전력용 반도체 생산업체인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eon Technologies AG)의 패트릭 레타인투리에르(Patrick Leteinturier) 박사도 "어제 온라인 전기버스를 타봤는데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실제 시장적용 가능성이 확보됐고 기술의 성숙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AIST,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 개최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력 2010-06-18, 17:54 신유진 기자 yj-1006@hanmail.net

KAIST(총장 서남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KAIST 대강당에서 2010 전기 자동차 국제포럼(IFEV 2010)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온실가스배출 및 석유에너지 고갈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술현황과 정책 및 시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International)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회장과 KAIST 서남표 총장이 기조 연설을 했다.

특히 포럼에 참석한 세계 각 곳의 전기차 전문가들은 KAIST의 온라인 전기차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앤드류 브라운 국제자동차공학회장은 KAIST 온라인 전기차에 대해 "길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실제 적용가능 하도록 한 것은 KAIST가 처음"이라며 "전세계가 주목할만한 기술이며 앞으로 여러가지 수단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스티븐 쉘라도버 박사는 "미국에서도 연구를 하다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는 배터리의 기술과 가격경쟁력이 낮았다"며 "실험적 시스템.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타테오 아리모토(Tateo Arimoto)박사는 "KAIST의 온라인 전기차는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해 전세계 적으로도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의 패트릭 레타인투리에르 박사는 "KAIST의 온라인 전기

버스를 직접 타봤는데 놀랍고 대단했다"며 "안전하고 전자기장에 대한 부담이 적어 실제 적용이 가능, 기술 성숙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말했다.

앤드루 브라운 회장은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AIST는 지하에 매설된 급전케이블로서 전기를 공급받아 차량 동력을 제공하는 온라인 전기자동차(OLEV, On-Line Electric Vehicle)를 개발, 이 차량은 차량하부에 장착된 고효율 집전장치를 통해 주행 중일 때도 비접촉식으로 충전이 가능해 별도의 충전시설이나 대용량의 배터리가 필요 없다.

세계 전기차 전문가들 "KAIST OLEV 놀랍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06-18 12:53, 정운덕 기자 cobra@yna.co.kr

세계적인 전기차 전문가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온라인 전기차(OLEV)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제전기차포럼 참석차 KAIST를 방문한 앤드루 브라운(Andrew Brown) 국제자동차공학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로상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이 처음은 아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KAIST가 선두"라며 "지금의 수송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30여년 전 미국 UC버클리에서 온라인 전기차를 연구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스티븐 쉘라도버(Steven Shladover) 박사도 "당시에는 배터리의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이 낮아 실패했는데 KAIST에서 되살아나 발전되고 있는 것에 감동받았다."라며 "높은 수준의 실험시스템과 산학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다테오 아리모토(Tateo Arimoto) 박사 역시 "1980년대 일본에서 도입하려다 중단했었는데 KAIST에서 충분히 실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라며 "대중교통수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적용도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전력용 반도체 생산업체인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eon Technologies AG)의 패트릭 레타인투리에르(Patrick Leteinturier) 박사도 "어제 온라인 전기버스를 타봤는데 놀랍고 대단했다."라며 "실제 시장적용 가능성이 확보됐고 기술의 성숙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앤드루 브라운 회장은 "전기차는 배터리 기술과 제작비용이 관건인데 기술수준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고 현재 1kWh당 1천500달러선인 제작비용도 2014년이면 800달

러선으로, 그 이후에는 300~400달러선까지 낮춰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수소차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것이 분명한 전기차의 개발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브라운박사 "KAIST OLEV 놀랍다"

연합뉴스 경제, 기사입력 2010-06-18 12:57, 정운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정운덕 기자 = 국제전기차포럼 참석차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방문한 앤드루 브라운(Andrew Brown) 국제자동차공학회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KAIST의 온라인 전기차(OLEV)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美 온라인전기차 연구실패자 "KAIST 보고 감동"

세계 전기차 전문가들, KAIST 찾아 온라인전기차 높이 평가

대덕넷, 기사입력 2010-06-20, 유상영 기자 young@hellodd.com

美 온라인전기차 연구실패자 "KAIST 보고 감동"

세계 전기차 전문가들, KAIST 찾아 온라인전기차 높이 평가

▲ (왼쪽부터)스티븐 쉘라도버 박사, 앤드류 브라운 국제자동차공학회장, 다테오 아리모토 박사

패트릭 레타인투리에르 박사.

©2010 HelloDD.com

"KAIST가 개발한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이 놀랍습니다. 개념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기술개발은 1년 밖에 걸리지 않았고 대학과 산업체간의 협력 등을 통해 개발했다는 것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전문가들이 KAIST(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의 온라인전기차 (OLEV·On-Line Electric Vehicle)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2010 국제전기차포럼(IFEV 2010)에 참석하기 위해 KAIST를 방문한 앤드류 브라운 (Andrew Brown) 국제자동차공학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KAIST 온라인전기차 처럼 도로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은 처음이 아니나 도로에 실제 적용한 것은 KAIST가 선두주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지금의 운송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기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전기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비용효율적이면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0여년 전 미국 UC버클리대학에서 온라인전기차를 연구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스티븐 쉘라도버(Steven Shladover) 박사는 "예전 배터리의 기술과 파워일렉트라닉스 기술의 수준이 낮아 실패했는데 KAIST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기술에 감동받았다"며 "KAIST의 온라인전기차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다테오 아리모토(Tateo Arimoto)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박사는 "일본의 지방정부는 1980년대 전기차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려다 중단했지만 KAIST에서 충분히 실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온라인 전기차에 사용된 무선전기수송기술은 대중교통수단 이외에 다른 분야에 활용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패트릭 레타인투리에르(Patrick Leteinturier)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eon Technologies AG) 박사 역시 온라인 전기차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KAIST의 온라인 전기차를 시승했는데 안전한 기술이라고 생각했고 기술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설계도 잘 돼있고 전자파도 낮고 전력 효율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대체할 미래의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온라인전기차는 모든 곳에 적용할 기술은 아니지만 특정지역과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 교통체계의 대안으로 매우 흥미로우며 세계로부터의 관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과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앤드류 회장은 "전기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와 제작비용을 낮추는 것"이라며 "1kWh당 1500달러선이었던 제작비용도 800달러선이고 2014~5년이면 300~400달러로 낮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전기차 전문가들은 온라인 전기차가 수소엔진차의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앤드류 회장은 "수소엔진차는 경쟁력이 없다고 본다. 수소를 안정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직은 어렵고 연료 충전소와 고압탱크의 설치도 어렵다"며 "전기는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연료 충전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KAIST 온라인전기차 사업은 최근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성을 종합한 점수가 낮게 평가돼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KAIST 2010 국제전기차포럼의 전문가들 의견이 온라인전기차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世界の専門家らがKAISTのオンライン電気自動車を高く評価
米国のSteven Shladover博士、「KAISTの技術に感動」

대덕넷 기사입력 2010-06-21 12:57, 정윤덕 기자 itom@hellodd.com



(左より)Steven Shladover博士、Andrew Brown会長、有本建男博士、Patric Leteinturier博士
©2010 HelloDD.com

世界的な電気自動車の専門家らがKAIST(韓国科学技術院、総長ソ・ナムピョ)のオンライン電気自動車(OLEV・On-Line Electric Vehicle)に高い関心を示した。

2010国際電気自動車フォーラム(IFEV 2010)に参加するためにKAISTを訪れた国際自動車工学会のAndrew Brown会長は6月18日に行われた記者懇談会で「KAISTのオンライン電気自動

車のように道路上で電気の供給を受ける方式は初めてではないが、道路に実際に設置されたケースは多くなくKAISTが先進的と言える。現在の運送手段に代わり得る技術であり世界的な注目を受けるだろう」と評価した。

また30年前に米国のカリフォルニア大学バークレー校でオンライン電気自動車を研究したが失敗した経験をもつSteven Shladover博士は「当時はバッテリーの技術とパワーエレクトロニクス技術の水準が低く失敗したが、KAISTがこの技術を蘇らせていることに感動した。KAISTのオンライン電気自動車の技術について学びたい」と述べた。

日本の科学技術振興機構(JST)有本建男博士は「日本の地方自治体は1980年代に電気自動車を公共交通手段を導入しようとして中断したが、KAISTはそれが十分に実現可能であるという可能性を示した。オンライン電気自動車に使用されている無線電気輸送技術は公共交通手段以外の他の分野に活用しても競争力があるだろう」と述べた。

ドイツInfineon Technologies AGのPatric Leteinturier博士は「KAISTのオンライン電気自動車に試乗したが、安全な技術であり設計もきっちりしており電磁波も低く電力効率性も優れているため未来の公共交通手段となる可能性は充分ある。オンライン電気自動車は都市交通体系の代案として非常に興味深く世界の関心を集めるのに十分な資格を持っているが、技術とデザインの改善が必要だろう」と評価した。

世界的な電気自動車専門家らはオンライン電気自動車が水素エンジン自動車と比較しても競争力があると評価した。国際自動車工学会のAndrew Brown会長は「水素エンジン自動車は水素の安定的かつ持続的供給が容易ではなく燃料充填所や高压タンクの設置も難しい。電気はどこでも使用できるので燃料充填の問題も解決可能」と述べた。

KAISTのオンライン電気自動車事業は最近韓国政府の事業予備妥当性調査で低い評価を受け、無理な事業推進という指摘を受けただけに今回の国際電気自動車フォーラムの専門家らの意見がオンライン電気自動車の事業推進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が注目される。

[깊이있는 과학]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2)

낮은 전류 사용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일정한 노선버스에 배터리 장착 1차 연구개발 진행중
기술응용 분야 확대 승용차 개발·새 산업영역도 적용

충청투데이, 2010.06.16

온라인전기자동차와 유사한 프로젝트로 알려진 미국의 PATH 프로젝트에서는 지난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KAIST에서 사용하는 전류의 10배 이상의 전류인 2000A를 사용하고도 지표면으로부터의 최대 이격거리 7cm에서 최대 60%의 효율만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0A의 전류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장에 의한 안전문제와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

고, 낮은 공진주파수 사용에 따른 소음 문제와 무선에너지 전달 효율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상용화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KAIST의 온라인전기자동차 프로젝트에서는 PATH에 비해 1/10 수준의 낮은 전류(200A)와 높은 공진주파수를 사용하여 20cm 이격거리에서 최대 80% 이상의 효율을 확보하고 자기장 문제도 해결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상용화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으며, 낮은 전류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큰 장점을 보유하게 되었다.

KAIST에서는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대비 1/5 수준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시점, 종점, 교차로, 정류장 등 전체 운행 구간의 약 20% 정도에 급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충전에 대한 부담없이 지속적인 주행이 가능한 온라인 전기버스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1차적인 타깃으로 정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전기버스 시험 및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기술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철도 시스템에 비접촉 자기충전방식 도입을 추진하여 기술적용 및 응용 분야를 확대하고, 온라인 전기버스 상용화 이후 인프라를 공유하여 온라인 전기승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급집진 핵심기술과 결과물은 수송시스템 뿐만 아니라 무선전력전송이라는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우 타산업과의 융합연구를 통한 활용 및 파생기술 보급의 가속화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일부 그룹에서 무선전력전송기술을 미래사회를 바꿀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새로운 산업과 수요창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래 전기자동차 시대는 자동차산업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을 고려할 때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자산업 전환에 견줄만한 새로운 자동차산업의 창출과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Evolution Path를 통한 접근이 아니라 Revolution Path를 통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개발을 통해 전기자동차시대를 혁신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자동차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확보하지 못한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KAIST 전기자동차 국제포럼 내일부터 사흘간 대강당서

전세계 그린카 기술현황 한눈에

대전일보, 2010-06-16 20면기사, 정재필 기자 jpscoop@daejonilbo.com

KAIST(총장 서남표)가 주최하는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IFEV 2010)'이 17일부터 19일(금)까지 3일간 KAIST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온실가스배출 및 석유에너지 고갈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술현황과 정책 및 시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International)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 회장과 KAIST 서남표 총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국제자동차공학회는 100개국 엔지니어, 기업임원, 교육자 등 12만 8000여명이 운송 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 자동차분야의 최대 학회이다.

브라운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전기자동차 혹은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의 다양한 시장요인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계되는 기술 동향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 현장에 당면한 과제들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가치 형상화와 고가의 전기자동차 구매 증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 제도 등이 논의되고, 배터리 기술 및 파워 일렉트로닉에서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스마트 그리드 개발 등 모든 핵심 요소들이 언급된다.

이밖에 서 총장은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카 기술로서, 기존 전기자동차가 가진 배터리의 무게, 수명, 충전시간, 리튬자원 한정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전기자동차 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olev.co.kr/en/ife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필 기자 jpscoop@daejonilbo.com

KAIST 17일부터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

전세계 그린카 기술현황 한눈에

헤럴드 경제, 2010-06-15 14:49, 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KAIST가 주최하는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IFEV 2010)'이 오는 17일~19일까지 3일간 KAIST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온실가스배출 및 석유에너지 고갈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술현황과 정책 및 시장'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International)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 회장과 KAIST 서남표 총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국제자동차공학회는 100개국 엔지니어, 기업임원, 교육자 등 십이만팔천여명의 회원이 운송 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 자동차분야의 최대 학회다.

브라운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전기자동차 혹은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의 다양한 시장요인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계되는 기술 동향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 당면한 과제들, 즉 전기자동차 시장의 가치 형상화와 고가의 전기자동차 구매 증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 제도 등을 논의한다. 또한 배터리 기술 및 파워 일렉트로닉에서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스마트 그리드 개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핵심 요소들도 토론한다.

포럼은 세션 1, 2로 나뉘 진행하며 세션 1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정책 및 시장'이라는 주제 아래 타테오 아리모토(Tateo Arimoto)박사가 '일본의 녹색혁신정책', 패트릭 레타인튜리에르(Patrick Leteinturier)박사가 '전기자동차 시장의 동향과 대응책',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시복 박사가 '한국의 전기자동차개발' 등을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 '전기자동차 기술'이라는 주제 아래 스티븐 쉘라도버(Steven Shladover)박사가 '주행중 도로 충전 방식의 전기자동차 개발 프로그램인 PATH 경험 소개', 카야노 후쿠다(Kayano Fukuda) 박사가 '일본의 녹색기술', KAIST 김정호 교수가 온라인전기자동차 전자파 안전성 외 임춘택, 서인수 교수가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분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는 등 국내·외 세계적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포럼에서는 또한 온라인전기자동차 시연도 예정돼 있다.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olev.co.kr/en/ife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KAIST'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개최

각 국 전기자동차 개발동향 및 미래방향 토론하는 국제행사

국제 자동차 공학회(SAE International) 앤드류 브라운 회장 참석해

17~19일 KAIST 대강당에서 열려

한국경제, 입력: 2010-06-15 09:57 / 수정: 2010-06-15 09:57 ,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KAIST(총장 서남표)가 주최하는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IFEV 2010)'이 6월 17일(목)부터 19일(금)까지 3일간 KAIST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온실가스배출 및 석유에너지 고갈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술현황과 정책 및 시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International)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 회장과 KAIST 서남표 총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국제자동차공학회는 100개국 엔지니어, 기업임원, 교육자 등 십이만팔천여명의 회원이 운송 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 자동차분야의 최대 학회이다.

브라운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전기자동차 혹은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의 다양한 시장요인을 살펴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계되는 기술 동향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 당면한 과제들, 즉 전기자동차 시장의 가치 형상화와 고가의 전기자동차 구매 증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 제도 등이 논의된다. 또한 배터리 기술 및 파워 일렉트로닉에서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스마트 그리드 개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핵심 요소들이 언급된다.

또 KAIST 서남표 총장은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카 기술로서, 기존 전기자동차가 가진 배터리의 무게, 수명, 충전시간, 리튬자원 한정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 버클리대학 PATH(California Partners For Advanced Transit And Highways) 프로젝트의 스티븐 쉘라도버(Steven Shladover) 박사,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다테오 아리모토(Tateo Arimoto) 박사와 가야노 후쿠다(Kayano Fukuda) 박사, 세계 최대 전력용 반도체 생산업체인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eon Technologies AG)의 패트릭 레타인투리에르(Patric Leteinturier)박사 등 국제적 전문가들과 자동차부품 연구원(KATECH) 및 KAIST의 국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벌이게 된다.

포럼은 세션 1, 2로 나눠 진행되며, 세션 1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정책 및 시장'이라는 주제 아래 타테오 아리모토(Tateo Arimoto)박사의 '일본의 녹색혁신정책', 패트릭 레타인튀리에르(Patrick Leteinturier)박사의 '전기자동차 시장의 동향과 대응책',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시복 박사의 '한국의 전기자동차개발' 등이 발표된다.

세션 2에서는 '전기자동차 기술'이라는 주제 아래 스티븐 쉘라도버(Steven Shladover)박사의 '주행중 도로 충전 방식의 전기자동차 개발 프로그램인 PATH 경험 소개', 카야노 후쿠다(Kayano Fukuda) 박사의 '일본의 녹색기술', KAIST 김정호 교수의 온라인전기자동차 전자파 안전성 외 임춘택, 서인수 교수의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분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는 등 국내·외 세계적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본 포럼에서는 또한 온라인전기자동차 시연이 예정돼 있다.

한편 KAIST는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유타 주립대,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등으로 구성된 도로충전 및 자동화를 위한 파트너쉽(Partnership for Roadway Electrification and Automation, PREV)단체와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로부터 공동연구를 제외받아 검토중이다.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olev.co.kr/en/ife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전기차 세계 석학들 KAIST에서 상용화 열띤 논의...17~19일 KAIST 대강당

뉴스시스, 기사입력 2010-06-15 09:44, 박병립 기자 bartongs@newsis.com

【대전=뉴스시스】 박병립 기자 = KAIST(총장 서남표)는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IFEV 2010)'을 17~19일 KAIST 대강당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실가스배출 및 석유에너지 고갈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술현황과 정책 및 시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또 국제자동차공학회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 회장과 KAIST 서남표 총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브라운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의 다양한 시장요인을 살펴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계되는 기술 동향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 현장에 당면한 전기자동차 시장의 가치 형상화와 고가의 전기자동차 구매 증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 제도 등도 논의된다.

배터리 기술 및 파워 일렉트로닉에서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스마트 그리드 개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들 역시 언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 총장은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카 기술로서, 기존 전기자동차가 가진 배터리의 무게, 수명, 충전시간, 리튬자원 한정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전기자동차 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또 미국 버클리대학 PATH 프로젝트의 스티븐 쉘라도버(Steven Shladover) 박사,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다테오 아리모토(Tateo Arimoto) 박사와 가야노 후쿠다(Kayano Fukuda) 박사, 세계 최대 전력용 반도체 생산업체인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eon Technologies AG)의 패트릭 레타인투리에르(Patric Leteinturier)박사 등 국제적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도 예상된다.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자동차 국제포럼 개최

17~19일 한국과학기술원서

디지털타임스 | 2010-06-13 21:29 , 이형근 기자 bass007@dt.co.k

한국과학기술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은 공동으로 `2010 전기자동차 국제 포럼(IFEV 2010)'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앤드류 브라운 회장을 비롯해 전기차 관련 석학들이 참석하며, 세계 각국 전기자동차 기술현황과 미래 무인화 자동차 기술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이나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olev.co.kr/en/ifev)를 통해 할 수 있다.

KAIST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 개최

YTN, 2010년 06월 15일 [09:45]

(대전=뉴스와이어) 2010년 06월 15일 [09:45]--KAIST(총장 서남표)가 주최하는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IFEV 2010)'이 6월 17일(목)부터 19일(금)까지 3일간 KAIST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온실가스배출 및 석유에너지 고갈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기술현황과 정책 및 시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International)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 회장과 KAIST 서남표 총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국제자동차공학회는 100개국 엔지니어, 기업임원, 교육자 등 십이만팔천여명의 회원이 운송 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 자동차분야의 최대 학회이다.

브라운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전기자동차 혹은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의 다양한 시장요인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계되는 기술 동향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에 당면한 과제들, 즉 전기자동차 시장의 가치 형상화와 고가의 전기자동차 구매 증진을 위한 정부 보조금 제도 등이 논의된다. 또한 배터리 기술 및 파워 일렉트로닉에서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스마트 그리드 개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핵심 요소들이 언급된다.

또한 KAIST 서남표 총장은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카 기술로서, 기존 전기자동차가 가진 배터리의 무게, 수명, 충전시간, 리튬자원 한정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 버클리대학 PATH(California Partners For Advanced Transit And Highways) 프로젝트의 스티븐 쉘라도버(Steven Shladover) 박사,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타테오 아리모토(Tateo Arimoto) 박사와 카야노 후쿠다(Kayano Fukuda) 박사, 세계 최대 전력용 반도체 생산업체인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eon Technologies AG)의 패트릭 레타인튜리에르(Patrick Leteinturier)박사 등 국제적 전문가들과,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 및 KAIST의 국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벌이게 된다.

포럼은 세션 1, 2로 나뉘어 진행되며, 세션 1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정책 및 시장'이라는 주제 아래 타테오 아리모토(Tateo Arimoto)박사의 '일본의 녹색혁신정책', 패트릭 레타인튜리에르(Patrick Leteinturier)박사의 '전기자동차 시장의 동향과 대응책',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시복 박사의 '한국의 전기자동차개발' 등이 발표된다.

세션 2에서는 '전기자동차 기술'이라는 주제 아래 스티븐 쉘라도버(Steven Shladover)박사의 '주행중 도로 충전 방식의 전기자동차 개발 프로그램인 PATH 경험 소개', 카야노 후쿠

다(Kayano Fukuda) 박사의 '일본의 녹색기술', KAIST 김정호 교수의 온라인전기자동차 전자파 안전성 의 임춘택, 서인수 교수의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분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는 등 국내·외 세계적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본 포럼에서는 또한 온라인전기자동차 시연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KAIST는 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유타 주립대,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등으로 구성된 도로충전 및 자동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Roadway Electrification and Automation, PREV)단체와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로부터 공동연구를 제의받아 검토중이다.

'2010 전기자동차 국제포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olev.co.kr/en/ife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대덕] 이스라엘 대통령 KAIST 방문

YTN TV 입력시각 : 2010-06-11 00:23, 이정우 ljwow@ytn.co.kr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KAIST를 방문해 한국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소개 받았 습니다.

KAIST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의 환영인사를 받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 령 일행은 온라인 전기차를 시승하는 등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과학기술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정우 [ljwow@ytn.co.kr]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KAIST 방문

양국 대학간 과학기술 교류 의견교환

대전일보, 2010. 6. 10. 박병준 기자 joonzx@daejonilbo.com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9일 오전 대전 KAIST를 방문, 온라인 전기차 등을 둘러보 고 KAIST와 이스라엘 대학 간의 상호 협력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의 환영인사에 악수로 화답한 페레스 대통령은 이후 행정본관에서 서남표 KAIST 총장과 환담을 가졌다.

서 총장은 KAIST의 역사와 기술력, 온라인 전기 자동차 등을 페레스 대통령에 설명하며

KAIST와 이스라엘 대학 간의 교류확대를 피력했다.

페레스 대통령은 “한국은 자금과 훌륭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협력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우리는 어느 기관이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페레스 대통령 일행은 직접 온라인 전기 자동차를 시승한 뒤 무선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온라인 전기차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이스라엘 간 민간 과학기술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들과 가진 오찬장에는 박성효 대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우주기술, 수자원활용기술, 바이오기술과 관련한 주제를 두고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준 기자 joonzx@daejonilbo.com

KAIST 찾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전자신문, 기사등록일 2010.06.10,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9일 KAIST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로부터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한국의 발전이 놀랍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과학 분야에서의 발전 속도는 더욱 놀랍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 수자원, 전기,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방한 중인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87)이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찾았다. 이번 방문 목적은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도시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둘러보고, 한국의 과학기술계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날 KAIST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페레스 대통령은 “과학은 과거 국가간 영토 전쟁을 대체하고 에너지, 오염, 식량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며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학의 특성상 국가간, 대학간, 연구기관간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는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충분히 협조가 가능한 국가”라면서 “양국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은 여러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 등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폐수 재활용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자원의 75%에 달하는 물이 재활용을 통해 생성됩니다. 도시간에 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송할 것인지, 또는 물을 덜 먹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해수를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연구 등 에너지 분야도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페레스 대통령은 “오늘날 과학계는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쉽게 협력하고 소통될 수 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많은 협력과 투자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페레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시승한 KAIST의 온라인 전기차 시스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하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시스템과 카이스트의 시스템은 서로 다른 필요에 의해 추진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스라엘의 경우 도시간의 운상수단보다는 도시내에서의 운송 수단 대안으로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KAIST간 두 시스템의 장점을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페레스 대통령은 “KAIST의 기술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기차에 비해 비용이 보다 저렴하다”며 “어찌됐든 전기차의 개발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페레스 대통령 “첨단 과학기술 강점 공유하자”

대전일보, 2010-06-10 2면기사, 박병준 기자 joonzx@daejonilbo.com

“한국과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둘러싸였다는 지리적 조건이나 발전 과정 등 비슷한 점이 많다.”

“특히 양국은 지난 50여 년간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한 만큼 앞으로도 공동협력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9일 KAIST를 방문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한국의 첨단기술 발전에 놀라움을 표하며 양국 간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페레스 대통령은 KAIST의 온라인 전기 자동차를 시승한 뒤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에서 개발 중인 전기 이동수단과의 장단점을 비교하기도 했다.

페레스 대통령은 “KAIST의 전기차는 우리 것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스라엘은 도시 내 대안 운송 수단으로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는데, 두 시스템의 장점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발전에는 인간성이 가미돼야 한다”며 “과학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해 과학기술을 인류의 평화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현재 2011년까지 배터리 교체방식을 채택한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박병준 기자 joonzx@daejonilbo.com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KAIST 방문

재경일보 | 기사입력 2010-06-09 13:33 , 전지선 기자 jsjeon@jknews.co.kr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9일 오전 10시30분 한국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소개 받기 위해 KAIST를 방문했다.

▲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KAIST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의 환영인사를 받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행정본관 대회의실에서 서남표 총장과 환담을 가졌으며 KAIST를 간략하게 소개받았

다.

이후 시몬 페레스 대통령 일행은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온라인 전기차를 시승했고 온라인 전기차의 혁신적인 급전/집전시스템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스라엘 정부가 2011년까지 배터리 교체방식을 채택한 전기차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짧은 시간 내에 KAIST가 개발한 비접촉 충전방식의 '온라인 전기차'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며 놀라워했다.

AD 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일반 전기차와 비교하여 약 1/5 수준의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하므로 비싼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충전소가 필요 없고 도로에 충전시스템을 설치해 충전인프라 문제를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들과 가진 오찬에서는 우주, 바이오기술, 재생에너지, EEWS(Energy, Environment, Water and Sustainability)에 관한 주제에 관해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과학기술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정치가계의 산증인으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스라엘 노동당을 창당하였고 국무총리·내무장관·외무장관·재무장관·노동당 당수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인 오슬로협정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199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대통령 "온라인 전기차 인상적"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0-06-09 17:08, 양영석 기자youngs@yna.co.kr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9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 휴보와 온라인 전기차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날 오전 KAIST에 도착한 페레스 대통령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를 소개받고 휴보가 건네준 꽃다발을 받았다.

페레스 대통령은 이어 서남표 KAIST 총장으로부터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전기차, 모바일 하버 등에 대한 연구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온라인 전기차는 직접 타보기도 했다.

온라인 전기차 시승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한 페레스 대통령은 "온라인 전기차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한국은 현재 정치, 경제, 과학적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됐다."라며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원인 KAIST와 이스라엘 간 학문적, 인적 교류 등을 넓히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현재 효율적인 물 사용, 물 재활용 방안 등 물 확보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앞으로 에너지, 환경, 물 등의 분야에 정부, 민간 차원에서 한국과 많은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대통령 KAIST 방문, 온라인 전기차 good

아시아투데이, 2010.06.09 (수) 오후 5:05, 신유진 기자 yj-1006@hanmail.net

[아시아투데이=신유진 기자]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소개 받기 위해 KAIST를 방문, 온라인 전기차 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KAIST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 의 환영인사를 받고 행정본관 대회의실에서 서남표 총장과 9일 환담을 가졌다.

그는 KAIST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받은 후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온라인 전기차를 시승, 온라인 전기차의 혁신적인 급전.집전시스템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스라엘 정부가 2011년까지 배터리 교체방식을 채택한 전기차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짧은 시간 내에 KAIST가 개발한 비접촉 충전방식 온라인 전기차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며 놀라워했다.

KAIST가 개발한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일반 전기차와 비교해 약 1/5 수준의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하다.

이 자동차는 비싼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별도의 충전소가 필요 없어 도로에 충전시스템을 설치, 충전인프라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이스라엘 노동당을 창당, 국무총리.내무장관.외무장관.재무장관.노동당 당수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인 오슬로협정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199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기차 시승하는 이스라엘 대통령

뉴스시스 | 기사입력 2010-06-09 13:52, 박재용 기자 ppjayo5444@newsis.com



【대전=뉴스시스】 박재용 기자 = 9일 오전 카이스트(KAIST)를 방문한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

대통령(87·오른쪽)이 카이스트 문지동 캠퍼스에서 온라인 전기차를 시승하며 설명을 듣고 있다.

KAIST 찾은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휴보, 안녕?"

한국경제, 입력: 2010-06-09 21:59,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한경닷컴] 한국을 방문 중인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9일 대전 카이스트(KAIST)를 방문해 인공지능 로봇 '휴보'와 온라인 전기 자동차 등을 체험했다.또 서남표 총장을 만나 카이스트가 주도한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서 총장은 카이스트가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대학인 테크니온(Technion)과 폭넓게 교류할 수 있도록 페레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페레스 대통령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잦은 외세 침입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룬 역사적인 배경이 비슷한 나라”라고 인연을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 정부와 학교,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 투자를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스라엘은 75%의 물이 재활용을 통해 생성되며 도시 간의 물 수송이나 해수 활용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물 관련 기술의 교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KAIST 방문'

9일 오전 방문해 온라인 전기차 등을 시승하며 둘러봐

대전 시티저널, 2010년 06월 09일 (수) 16:05:32, 한재용 기자 news@gocj.net



▲ KAIST가 개발한 휴먼노이드 로봇 '휴보'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모습

한국을 방문중인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9일 오전 KAIST를 방문 한국의 과학기술을 살펴봤다.

KAIST가 개발한 휴먼노이드 로봇인 '휴보'의 환영인사를 받으며 도착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서남표 총장과 환담을 갖고 KAIST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이어 시몬 페레스 대통령 일행은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온라인 전기차를 시승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오는 2011년까지 배터리 교체방식을 채택한 전기차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KAIST가 짧은 시간 내에 개발한 비접촉 충전방식의 '온라인 전기차'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그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는 ▲우주 ▲바이오 기술 ▲재생에너지 ▲EEWS(Energy, Environment, Water and Sustainability)에 관한 주제에 대해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논의 했다.



▲ 온라인 전기차를 시승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우측)이 서남표 KAIST 총장(좌측)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9일 KAIST방문

머니투데이, 입력 : 2010.06.09 17:46, 허재구 기자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9일 오전 한국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소개 받기 위해 KAIST를 방문했다.

KAIST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의 환영인사를 받은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행정본관 대회의실에서 서남표 총장과 환담을 가진 이후 KAIST 문지캠퍼스로 이동, 온라인 전기차를 시승하며 관련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들과 이어 가진 오찬에서 우주, 바이오기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과학기술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KAIST 관계자는 "이스라엘 정부가 2011년까지 배터리 교체방식을 채택한 전기차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지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KAIST가 개발한 비접촉 충전방식의 '온라인 전기차'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며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한국-이스라엘간의 정치, 군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60여 명의 이스라엘 재계 인사들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중이다.

“한국-이스라엘 과학기술 협력 강화할터”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KAIST 방문 양국 과학협력 강조

동아사이언스, 2010년 06월 09일, 전승민 기자 enhanced@donga.com

“이스라엘은 오렌지 농업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연구소를 세우면 그 수천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한국도 농업의 수천 배 이익을 KAIST로 부터 얻고 있을 것이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대전 KAIST를 찾아 과학기술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협력을 이끌어 내자고 강조했다. 8일부터 3일 일정으로 방한한 페레스 대통령은 9일 대전 KAIST 본원을 찾아 인간형 로봇인 휴보2 로부터 환영인사를 받고, 서남표 총장으로부터 KAIST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온라인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등 연구사례를 살펴봤다.

페레스 대통령은 이어 서남표 KAIST 총장과 대학간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서 총장은 이스라엘 과학기술대학인 테크니온(Technion)과 KAIST의 폭넓은 교류, 협력을 위해 페레스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했다. 페레스 대통령은 이에 “세계발전에 기여할 과학자 양성의 중요하다”며 “인체, 우주, 물, 에너지 생성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페레스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내용

-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 소감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잦은 외세침입을 극복하고 발전해 온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은 정치, 과학,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주목 받는 나라 중 하나다. 과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제약, 즉 좁은 땅과 부족한 식량 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완화시켜 준다. 과학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막으며, 부를 유지시킨다. 이스라엘 과학은 ‘인간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질병예방, 인공장기나 보조용구, 인공지능과 감정표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오늘 방문한 KAIST를 비롯해 한국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고 싶다.”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무엇이며, 한국과학기술계와의 협력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쉽게 협력하고 소통될 수 있다. 에너지, 환경, 물, 지속가능성 분야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물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75%의 물이 재활용을 통해 얻고 있다. 물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송하고, 물을 덜 먹는 식물을 재배하고, 해수를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물, 항공우주, 전기, 자동차 산업은 향후 많은 변화를 가져올 분야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과 정부, 학교, 민간 부분에 많은 협력과 투자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크다. 이스라엘은 오렌지 농업으로 유명한데, 오렌지를 경작하는 땅에 과학연구소를 세워 오렌지를 수출하는 몇 백배의 이득을 과학기술발전으로 얻고 있다. 카이스트 캠퍼스가 있는 곳은 예전에 논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마 한국 역시 쌀농사로 얻는 이익보다 카이스트가 창출하는 이익이 수천 배가 될 것이다.”

-오늘 KAIST 전기차를 시승했다. 이런 전기차 개발에 있어 이스라엘과 한국간의 협력 계획은? 시승 소감은 어떤가?

“우리는 도시 간의 운송 수단보다는 도시 내에서의 운송 수단 대안으로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토지 부족으로 고층 건물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고층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한 운송 수단에 대한 관심도 많다. KAIST의 기술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기차에 비해 비용이 보다 더 저렴하다. 전기차의 개발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인류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있는 사례는 있는가?

“과학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하는 반면, 과학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 우리는 과학을 책임감 있는 자세로 활용해야 한다. 과학교육은 과학이 지닌 이런 양면성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상해주지만 이를 활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윤리적인 판단이 잘못될 경우,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 KAIST 방문

휴보·온라인 전기 자동차 체험 후 “카이스트와 교류·협력 넓히고파”

충청투데이, 2010.06.10,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9일 KAIST를 방문해 한국의 혁신 기술을 소개받고 양국의 과학기술 교류를 논의했다.

이날 페레스 대통령은 KAIST 본원과 문지캠퍼스에서 KAIST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와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이스라엘은 내년까지 배터리 교체방식의 전기차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페레스 대통령은 KAIST가 개발한 비접촉 충전방식의 온라인 전기자동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페레스 대통령은 세계발전에 기여할 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국가와 대학간의 협력연구 방안을 피력했다.

이날 서남표 KAIST 총장은 “이스라엘 대학과 한국 대학과의 협력과 특히 이스라엘 과학기술대학인 테크니온과 KAIST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페레스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은 정치, 과학,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주목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대학교인 KAIST와 이스라엘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고 싶다”고 화답했다.

또 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시승한 페레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도시 간의 운송 수단보다 도시 내에서의 운송 수단 대안으로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는데, 카이스트의 기술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기차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다”며 “전기차 개발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분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문으로 양국의 과학 교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페레스 대통령은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들과 오찬을 갖고 우주와 바이오기술, 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한국과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스라엘 대통령 KAIST 방문... 온라인 전기차에 높은 관심

중도일보, 2010-06-10, 오주영 기자 ojy8355@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9일 오전 10시30분 한국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소개 받기 위해 KAIST를 방문했다.

KAIST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의 환영인사를 받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행정본관 대회의실에서 서남표 총장과 환담을 가졌으며 KAIST를 간략하게 소개받았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 일행은 KAIST 문지캠퍼스에서 온라인 전기차를 시승했고 온라인 전기차의 혁신적인 급전/집전시스템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스라엘 정부가 2011년까지 배터리 교체방식을 채택한 전기차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짧은 시간 내에 KAIST가 개발한 비접촉 충전방식의 '온라인 전기차'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이스라엘 대통령 KAIST 방문

시몬 페레스 대통령, KAIST 온라인전기차에 '관심'

한국대학신문, 10-06-09 오후 7:22,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9일 오전 KAIST를 방문했다. KAIST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의 환영인사를 받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행정본관 대회의실에서 서남표 총장을 만나 한국의 과학기술을 소개받았다.

이어 KAIST 문지캠퍼스를 방문, 온라인 전기차를 시승 이후 페레스 대통령 일행은 온라인 전기차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KAIST는 "이스라엘 정부가 2011년까지 배터리 교체방식을 채택한 전기차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래서인지 KAIST의 온라인 전기차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며 놀라워 했다"고 전했다.

KAIST가 개발한 온라인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의 1/5 수준의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하다. 별도의 충전소가 필요 없이 도로에 충전시스템을 설치하면 충전인프라 문제도 해결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들과 가진 오찬에서는 우주·바이오기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한국·이스라엘간의 정치, 군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60여 명의 이스라엘 재계 인사들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중이다.

말레이시아도 반한 '온라인 전기車'

KAIST 사업단 시승식... 장관 일행 주요도시 도입 협의

중도일보, 2010-06-02. 배문숙 기자 moons@

[대전=중도일보]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단장 조동호)은 1일 라자 농 칩말레이시아 국토부 장관 일행이 서울대공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KAIST의 온라인전기자동차 시승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방문단에는 말레이시아 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쿠알라룸푸르 부시장, 푸트라자야(신행정수도) 시장, 경제인연합회 감사, 각종 정부기금 담당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승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토지공사에 해당하는 말레이시아 'THP'와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시에 친환경 온라인 전기버스를 도입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서신으로 교환했다.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버스 및 전기자동차 기술을 모색중이며,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는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의 최적 기술을 모색하고 있다.

KAIST 연구진은 이달 중 말레이시아를 방문, 후속 협의 및 현지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동호 단장은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향후 해외 시장 공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관련자가 대거 동행해 향후 온라인전기차의 도입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일행 온라인전기차 시승

대전일보, 2010. 6. 2. 정재필 기자 jpscoop@daejonilbo.com

말레이시아 라자 농 칙(Raja Nong Chick) 국토부 장관(Minister of Federal Territory) 일행이 1일 오후 서울대공원에서 KAIST가 구축해놓은 온라인전기자동차시범사업 현장을 방문, 시승식을 가졌다.

라자 농 칙 장관 일행의 이번 방문은 최근 KAIST와 말레이시아 토지개발공사격인 THP(TH PROPERTIES SDN. BHD·CEO Zaharuddin Saidon)와 친환경 온라인 전기버스를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시에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이뤄진 후속조치다.

라자 농 칙 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차관, 쿠알라룸푸르 부시장, 푸트라자야(신행정수도) 시장, 경제인연합회 감사, 각종 정부 기금 담당자 등이 동행했는데 향후 말레이시아에 온라인전기차를 보급하고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종합적인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것이라는 게 KAIST 측의 설명이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는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대기환경 오염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를 해결할수 있는 전기버스 및 전기자동차 기술을 모색중이고,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

야는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의 최적 기술을 모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및 주요 도시는 이번 한국 방문 이후 KAIST와 온라인전기차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고, KAIST는 6월 중 연구진을 말레이시아로 보내 후속 협의 및 현지답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라자 장관은 이날 온라인전기차가 녹색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최적의 기술이라며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KAIST 관계자는 “이번 말레이시아 국토부 장관의 방문을 통해 KAIST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향후 해외 시장 공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는 정부, 지자체, 산업체, 연기금 관련자가 대거 동행해 향후 온라인전기차의 도입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jpscoop@daejonilbo.com

KAIST, 온라인 전기버스 말레이시아 진출

KAIST, 현지 토지개발공사와 MOU

디지털 타임스, 입력: 2010-06-02 20:51,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

올해 안으로 말레이시아 주요 도시에 KAIST가 개발한 온라인전기버스가 설치될 전망이다.

KAIST는 지난 1일 말레이시아 토지개발공사와 친환경 온라인 전기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토지개발공사는 KAIST가 개발한 온라인 전기버스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엔스택 그린시티의 내부 순환도로 15km 구간에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또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에는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적의 기술을 마련하기 위한 양 기관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AIST는 이달 중 말레이시아 현지를 실시하고 정부 및 토지개발공사 측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라자 농 칙 국토부 장관 일행 10여명은 KAIST 온라인전기차가 시범 운행되고 있는 과천 서울대공원을 찾아 온라인전기차를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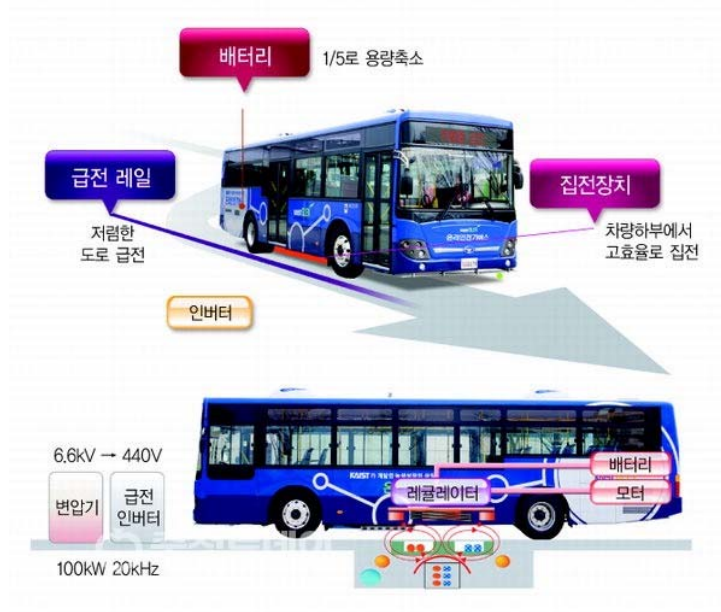
KAIST 관계자는 "말레이시아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KAIST의 온라인전기차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향후 해외시장 공략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깊이있는 과학]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

현배터리 걱정없이 지속주행 가능 재까지 개발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 한계 차량하부 집전장치·도로 급전라인 비접촉 유도로 충전걱정 없이 전력공급 해결 ... 조만간 운행 돌입

충청투데이, 2010.06.02 , 허연희 기자/okidoki@heraldm.com



자동차 관련 산업은 전 세계 시장규모 1.5조 달러의 최대 제조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10% 비중을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산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인류가 당면한 환경과 에너지 문제로 인해 친환경 자동차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리튬 배터리 방식의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무게, 가격, 수명, 충전시간 및 리튬자원의 한계, 충전소 설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배터리를 국가가 소유하고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거나, 구입 초기 세제지원 등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기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문제와 충전 인프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문제와 충전 인프라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개념이 온라인전기자동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전기자동차는 차량 하부에 장착된 고효율 집전장치를 통해 실시간 주행 및 정차 중 도로에 설치된 급전라인으로부터 비접촉 자기유도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충전의 걱정 없이 지속적인 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2009년 2월 KAIST는 자체 연구를 통해 지표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 1cm에서 최대 전력전달 효율 80%를 달성한 온라인전기자동차의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선보인데 이어, 정부지원을 통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한 지 불과 수개월만인 2009년 8월에 온라인전기버스를 대상으로 지표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 17cm에서 최대 전력전달 효율 72%를 달성하는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달성했다.

사업 초기부터 일부 전문가들은 비접촉 자기유도방식을 이용하여 KAIST에서 2009년 연구개발의 목표로 제시하였던 지표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 12cm, 효율 6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KAIST에서는 융합연구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고, 현재는 KAIST 문지캠퍼스에 구축된 종합시험장에서 지표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 20cm에서 80% 이상의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

또 온라인전기자동차의 자기장 안전기준과 관련해 KAIST에서는 지난 1년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온라인전기자동차가 급전라인 위에 있을 경우에만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세그멘테이션 기술과 다양한 자기장 차폐기술을 개발해 현행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장 안전기준인 62.5mG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안전성 관련된 문제도 해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KAIST는 2009년도에는 서울시 지원 속에 서울대공원에 온라인전기열차 시범인프라를 구축, 지난 3월 준공식을 가졌고, 곧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바야흐로 온라인 전기자동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제주도 등 많은 지자체들이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에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을 적용하고자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많은 언론과 기관들이 KAIST의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 현황과 성과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계획하고 있는 쿠알라룸푸르 에코단지에 온라인전기자동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KAIST, 말레이시아와 온라인 전기차 수출 MOU

매일경제, 2010.06.01 13:47:02 입력 , [뉴스속보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일 말레이시아 토지개발공사와 온라인 전기차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KAIST가 개발한 온라인 전기차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엔스텍 그린시티의 내부 순환도로 15km 구간을 오갈 대중교통수단(버스)으로 도입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KAIST는 이달중 말레이시아 현지를 실사하고 정부 및 토지개발공사 측과 소요예산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온라인 전기차의 첫 수출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4시 30분 말레이시아 라자 농 칙(Raja Nong Chick) 국토부 장관 일행 10여명이 KAIST 온라인 전기차가 시범운행중인 과천 서울대공원을 찾아 온라인 전기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엔스텍 그린시티 이외 말레이시아의 다른 주요 도시들도 KAIST와 온라인 전기차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호 KAIST 온라인 전기차 사업단장은 "말레이시아와의 MOU 체결이 KAIST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전기차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향후 해외시장 공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AIST, 말련과 온라인 전기차 수출 MOU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06-01 11:52, 정윤덕 기자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일 말레이시아 토지개발공사와 온라인 전기차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KAIST가 개발한 온라인 전기차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엔스텍 그린시티의 내부 순환도로 15km 구간을 오갈 대중교통수단(버스)으로 도입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KAIST는 이달중 말레이시아 현지를 실사하고 정부 및 토지개발공사 측과 소요예산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온라인 전기차의 첫 수출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4시 30분 말레이시아 라자 농 칩(Raja Nong Chick) 국토부 장관 일행 10여명이 KAIST 온라인 전기차가 시범운행중인 과천 서울대공원을 찾아 온라인 전기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엔스텍 그린시티 이외 말레이시아의 다른 주요 도시들도 KAIST와 온라인 전기차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호 KAIST 온라인 전기차 사업단장은 "말레이시아와의 MOU 체결이 KAIST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전기차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향후 해외시장 공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AIST, 말련과 온라인 전기차 수출 MOU

인터넷한국일보, 입력시간 : 2010/06/01 13:15:05, 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일 말레이시아 토지개발공사와 온라인 전기차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KAIST가 개발한 온라인 전기차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엔스택 그린시티의 내부 순환도로 15km 구간을 오갈 대중교통수단(버스)으로 도입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KAIST는 이달중 말레이시아 현지를 실사하고 정부 및 토지개발공사 측과 소요예산 등을 협의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온라인 전기차의 첫 수출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KAIST '온라인 전기차' 해외 진출 시동

오늘 말레이시아 토지개발공사와 MOU 체결

대전일보, 2010-06-01 8면기사, 정재필 기자 jpscoop@daejonilbo.com

KAIST가 개발한 친환경 온라인 전기차가 처음으로 해외로 수출될 예정이다.

KAIST(총장 서남표)는 1일 말레이시아 토지개발공사(TH PROPERTIES SDN. BHD·CEO Zaharuddin Saidon)와 온라인 전기차 수출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사업성여부 등을 놓고 적지않은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전기차가 해외로 나서게 된 셈이다.

말레이시아는 온라인 전기버스를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조성 중인 엔스택 그린시티 내부 순환도로 교통수단으로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MOU 체결 후 내달중으로 말레이시아 현지를 실사하고 정부 및 토지개발공사 측과 소요예산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온라인 전기차 수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정부 관료와 토지개발공사 사장, 자동차업체 관계자 등은 지난 3월 과천 서울대

공원을 방문, 시험 운행 중인 온라인 전기차에 대한 현황 등을 소개받았고, 1일 오후 말레이시아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료 10여명이 다시 서울대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방문단에는 향후 말레이시아에 온라인전기차를 보급하고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종합적인 국가 전략 수립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어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종합적인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방문 성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토지개발공사(THP)는 총리실 직속의 기금 운영기관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말레이시아 내 대규모 지역 및 도시개발 사업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엔스텍(Enstek)지구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인 엔스텍 그린시티(Enstek Green City)는 쿠알라룸푸르 근교의 세팡 F1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주거, 교육, 산업, 의료 복합 도시로서 태양광 발전과 전기자동차 이용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KAIST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향후 해외 시장 공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말레이시아 정부, 지자체, 산업체, 연기금 관련자가 대거 동행해 향후 온라인전기자동차의 도입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필 기자
jpscoop@daejonilbo.com

KAIST 온라인 전기차 해외 수출

말레이시아 토지공사와 시스템 도입 협력키로

주행 중 무선 충전...친환경 도시건설에 적용

한국대학신문, 10-06-01 오전 11:06,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KAIST가 개발 중인 온라인전기차를 말레이시아가 도입하기로 했다.

KAIST는 1일 말레이시아 토지개발공사(THP)와 온라인 전기 버스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THP는 말레이시아 총리실 직속 기금운영기관인 ‘렘바가 타붕 하지(Lembaga Tabung Haji)’가 전액 출자한, 우리나라 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다. 말레이시아 내 대규모 지역·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THP는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엔스텍(Enstek)지구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개발사업 가운데 엔스텍 그린시티(Enstek Green City)는 쿠알라룸푸르 근교에 위치한 주거·교육·산업·의료 복합도시다. 친환경 태양광 발전과 전기자동차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때문에 KAIST의 온라인전기차 시스템이 그린시티 내부를 순환하는 전기버스 노선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온라인전기버스 노선은 편도 약 15km로 신도시 거주 주민의 대중교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THP는 “현재 추진 중인 엔스텍 개발사업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친환경 사업에서 온라인전기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ST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향후 온라인전기차의 해외 진출을 확대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IST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온라인전기차 사업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향후 해외 시장 공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레이시아 정부, 지자체, 산업체, 연기금 관련자가 대거 동행해 향후 온라인전기차의 도입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AIST는 2009년 도로를 주행하면서 무선으로 충전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전기차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은 주행 중 충전을 통해 기존 전기차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배터리 용량과 가격문제를 해결했다. “전기차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 기술”이라는 게 KAIST의 평가다.

말레이시아 국토부장관, 온라인전기자동차시범사업 현장 방문

아시아투데이, 입력 [2010-06-01 16:46] , 신유진 기자

[아시아투데이=신유진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일 말레이시아 국토부장관 라자농직 일행이 온라인전기자동차시범사업 현장(서울대공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말레이시아 THP(TH PROPERTIES SDN. BHD, CEO Zaharuddin Saidon)와 친환경 온라인 전기버스를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시에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라자 장관은 말레이시아에 온라인전기차를 보급,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종합적 국가 전략 수

립을 위해 이날 현장을 방문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상습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으로 전기버스,전기자동차 기술을 모색중이다.

이에 따라 마레이시아 정부와 주요 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동호 KAIST 온라인전기차사업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KAIST가 추진중인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이 해외 시장 공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방문에는 정부,지자체,산업체,연기금 관련자가 대거 동행, 온라인전기차의 도입과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j-1006@hanmail.net>

말련 국토부 장관, 온라인전기차 시승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06-01 18:45, 임현정 기자 kkane@yna.co.kr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말레이시아 라자 농 칙(Raja Nong Chick, 오른쪽) 국토부장관 일행이 1일 오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서남표(왼쪽) 카이스트 총장과 온라인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다. 이들은 카이스트가 개발한 온라인 전기차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구간에 대중교통수단(버스)으로 도입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방한했다.

말레이시아 국토부장관 일행,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 현장 방문

YTN, 2010년 06월 01일 [10:26]

(대전=뉴스와이어) 말레이시아 국토부 장관(Minister of Federal Territory) 라자 농 칙(Raja Nong Chick) 일행이 KAIST(총장 서남표)가 서울대공원에 구축한 온라인전기자동차 시범사업 현장을 6월 1일 오후 4시 30분 방문하여 시승한다. 이와 관련 KAIST는 우리나라의 토지공사와 같은 회사인 말레이시아 THP(TH PROPERTIES SDN. BHD, CEO Zaharuddin Saidon)와 친환경 온라인 전기버스를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시에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서신교환을 통해 같은 날짜로 체결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녹색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신성장 동력이 되면서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 실현에 핵심이 되는 기술을 모색키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라자 장관 일행은 국제적 녹색기술 중 KAIST 온라인전기차의 기술적 가치와 전기차 보급 확대 가능성을 인정해 이번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자 장관의 방한에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차관, 쿠알라룸푸르 부시장, 푸트라자야(신행정수도) 시장, 경제인연합회 감사, 각종 정부기금 담당자 등이 수행하고 있어 향후 말

레이시아에 온라인전기차를 보급하고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종합적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방문 성격을 겸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는 상습적 교통정체와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버스 및 전기자동차 기술을 모색중이며, 신행정 수도인 푸트라자야는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의 최적 기술을 모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및 주요 도시도 이번 방문 이후 KAIST와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라자 장관은 기업인, 국회의원, 정부관료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경제 및 기술 전문가로서 이번 온라인 전기차 방문을 마무리하며 온라인전기차가 녹색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최적의 기술이라는 평가를 남기며 큰 관심을 보였다.

KAIST의 관계자는 “이번 말레이시아 국토부 장관의 방문을 통해 KAIST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이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높여 향후 해외 시장 공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에는 정부, 지자체, 산업체, 연기금 관련자가 대거 동행하여 향후 온라인전기차의 도입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IST에서는 6월 중 연구진이 말레이시아에 방문하여 후속 협의 및 현지답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AIST는 2009년 도로를 주행하면서 무선으로 충전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은 주행 중 충전을 통해 기존 전기자동차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배터리 용량과 가격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전기차의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우리 기술이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과 정책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KAIST의 온라인전기차가 달리는 것이 조만간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